



www.gpcackr



커피의 상징



청바지의 상징



팝아트의 상징



IT의 상징



실용교육의 상징



SNS의 상징



자동차의 상징



도시의 상징



브랜드의 상징



대한민국 실용인재의 기준은 언제나 경북도립대학교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실용인재의 대표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패시스의 청바지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시대와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듯이
경북도립대학교가 다음 세상을 이끌어갈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현장에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더욱 인정받는 실용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실용 교육의 명문 - 경북도립대학교

2014학년도 전형일정 안내

▶ 수시 1차 : 2013. 9. 4(수) ~ 9. 25(수) ▶ 수시 2차 : 2013. 10. 7(월) ~ 10. 23(수)

- 공무원 특채 실시 2012년 11명 임용
- 공무원 시험 완벽대비 공채 40명, 특채 52명(3명예정)
- 전국 최저수준의 등록금

- 풍부한 장학금
- 2011년도 장학금 수혜율 122%
- 2011년도 1인당 평균 장학금액 : 96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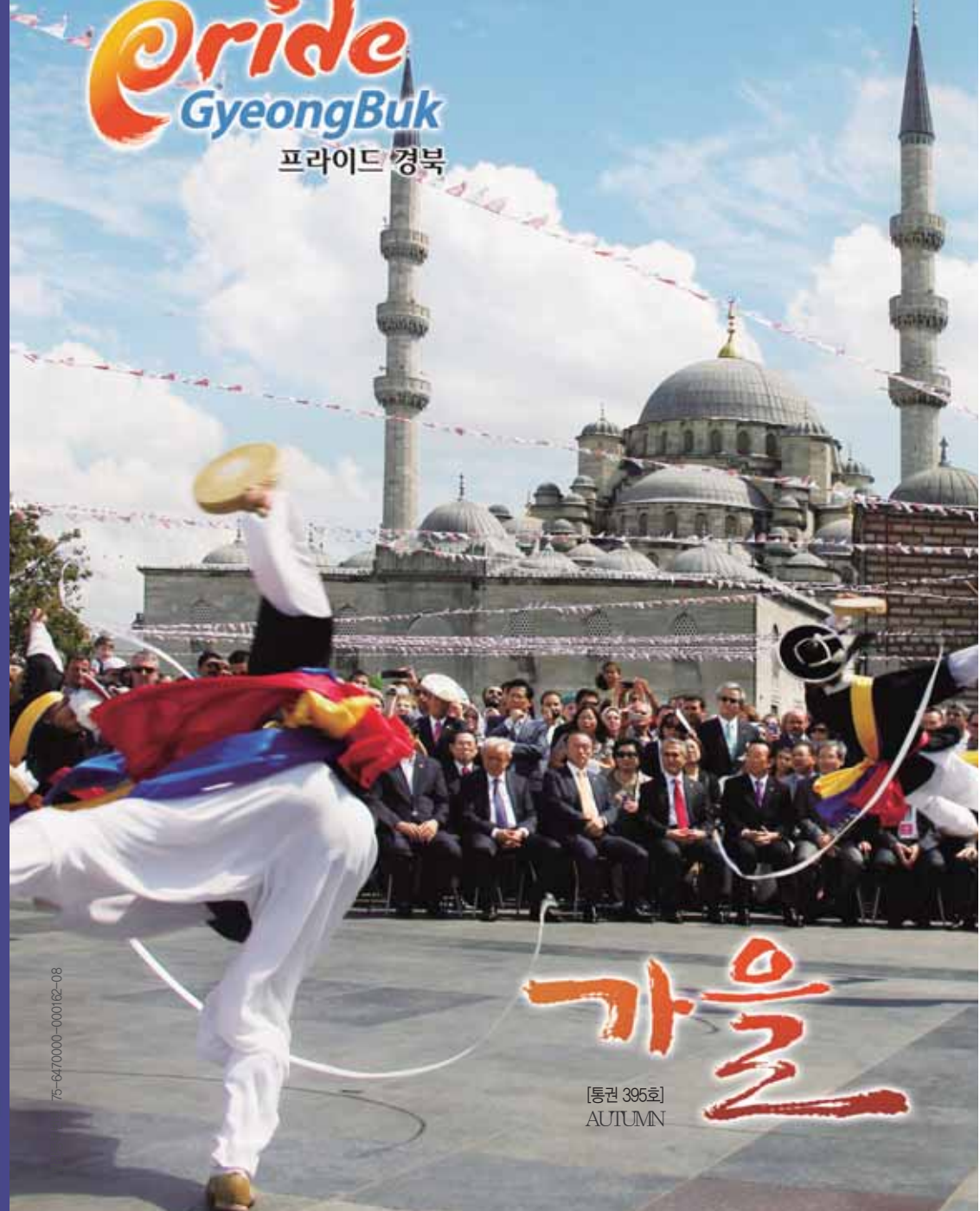


실용교육의 명문
경북도립대학교
GYEONGBUK PROVINCIAL COLLEGE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Pride GyeongBuk

프라이드 경북



가을

[통권 395호]
AUTUMN

75-6470000-000162-08

10. October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1 2013 상주농업기계박람회 상주시 농진센터(10.1~10.4) | 2 유지림 '전설의왕사 드래곤링'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제1회 영천함안장수축제 영천시 영천강변공원 (10.2~10.6) 2013 영천문화예술제 영천시 영천강변공원 (10.2~10.6) | 3 공연 '영어인간 & 숲 관하는 시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3~10.5) 신라 소리축제 매일레전드 2013 경주시 청학대 전대공연장 (10.3~10.6) 2013 영주 풍기민속축제 영주시 남원천 일대(10.3~10.9) | 4 뮤지컬 '사랑레몬즈' 경주시 찬미아트센터 (10.4~10.6) 제37회 상류문화제 울진군 울진엑스포공원 (10.4~10.6) 제1회 울진공립송 송이축제 울진군 울진엑스포공원 (10.4~10.6) | 5 독도수호 YU 합창 페스티벌 경주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노천강당 2013 한류페스티벌 경주예술의전당 등 (10.5~10.6) |
| 6 | 7 | 8 | 9 2013 여성 가을빛고운 대축제 의성군 의성중앙운동장 등 (10.9~10.11) | 10 가발 '복경량 & 하용부'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 박조홀 | 11 제1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에르메 아카데미 경주시 찬미아트센터 발레 '이별, 임마와 함께 떠나는 발레여행'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연극 '그것은 유희구멍 속의 검은 아들이었습니다'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 용무홀 (10.11~10.12) 2013 갑오를 상주 이야기축제 상주시 북천시민공원 (10.11~10.13) | 12 2013 문경사과축제 문경시 문경사태고림공원 (10.12~10.27) |
| 13 동아일보2013경주국제마라톤 경주시 황상공원 시민운동장 (10.13~10.27) | 14 2013 제2회 구미국제음악제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소공연장 (10.14~10.17) | 15 | 16 인형극 '오즈의 마법사'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 박조홀 (10.16~10.19) | 17 | 18 2013 세계유교음악페스티벌 영양교 두물마을 (10.18~10.20) 공연 '굿GOOD라가자' 경주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9 콘서트 '코코스홀리데이' 경주시 찬미아트센터 콘서트 '할루 캅찬소' 울산 K25홀 뮤지컬 '셀릭홀츠 : 엔디슨가의 비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 20 개그콘서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이루어 콘서트 경주예술의전당 | 21 | 22 | 23 | 24 | 25 | 26 이루어 콘서트 - 기원에 마무르다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3 신라의달밤 16리 강기대회 경주시 황상공원 시민운동장 광장 (10.26~10.27) |
| 27 | 28 | 29 | 30 | 31 클래식 '진보라 - 사랑을 보다'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 박조홀 | | |

11. November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 1 | 2 콘서트 '조함주 콘서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재희회 Musica da Camera 양상봉 정기 연주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 3 | 4 | 5 유지림 '전설의왕사 드래곤링' 영주시 문화회관 | 6 다문화 모자람 건립기념아리엔 자선음악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7 가발 '이생강 & 최종민'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 박조홀 | 8 2013 청송사과축제 청송군 청송사과공원 (11.8~11.11) 오페라 '몰리오와 줄리엣'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9 제17회 불우이웃돕기 구미시 장미문화축제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 10 | 11 콘서트 '이미자 콘서트' 상주시 경북대학교 | 12 | 13 | 14 | 15 연극 '키사라기 미카방'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 박조홀 (11.15~11.16) 연극 '김유정의 봄날'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15~11.16) | 16 총경민 세 번째 특서트 경주시 찬미아트센터 (11.16~11.17) |
| 17 함양연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8 | 19 | 20 | 21 | 22 연극 '내내리는 고모령'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 용무홀 (11.22~11.23) | 23 |
| 24 | 25 | 26 가곡과 아리아의 밤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27 | 28 제22회 구미새마을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9 | 30 김해정 피아노 독주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4회 경북합창제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CONTENTS
PRIDEGYEONGBUK
AUTUMN. VOL.395

| | |
|---------------|--|
| Special Theme | 04 '지구촌 문화 올림픽'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10 '경상북도 실�크로드 탐험대' 21세기 新실�크로드 대장정 성공! |
| 알찬살림 부자경복 | 12 2014년도 국비예산 확보는 도정 최우선 과제! 14 경북도 무역 흑자 1위로 전국 성과의 91% |
| 웃음가득 행복경복 | 16 KTX와 함께 하는 경북 고백 스테이 GO! GO! 17 경북도, 전통한옥 '한옥스테이 인증제' 대거 선정 |
| 밝은미래 희망경복 | 18 Why? 독도! |
| 도민사랑 일류경복 | 22 경북·울산·강원, 신동해안 비전발표 및 공동선언 선포 23 경북도, 항공전자부품산업 육성 본격 착수 24 지상파 TV 수신환경개선 및 난시청 해소 공동 협력 |
| | 25 건강상식 |
| 나드리, 이리오이소~ | 26 경북 가을여행 떠나요! 30 가 불만한 곳 -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선정된 문경새재 과거길 |
| 프라이드 News+ | 32 찰칵! 경북의 오늘 35 도정단신 40 도의회 소식 47 경북 알리미 51 지금 시·군에서는 |



표지 이야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통서안의 문화가 하나로 아우러진 터전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꽃피웠다.



AUTUMN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이상욱 · 발행일 | 2013년 10월 1일
· 문의처 | 경상북도 대변인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신격동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대변인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탄불 -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에 대한민국을 꽃피우다!



Expo Silk Road



ISTANBUL-
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3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 “양코르” 요청이 쏟아졌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목, 한 해에도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나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가 펼쳐져 세계인들을 열광시켰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이 8월 31일(현지시간)부터 9월 2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어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8월 31일 세계문화유산 ‘아야소피아 박물관’ 앞 특별무대에서 화려한 개막식 광파르를 시작으로 터키 이스탄불 시내 곳곳에서 전시, 공연, 체험, 특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이번 엑스포에는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하였다.

개막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국무총리,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공동조직위원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카디르 톱마쉬 이스탄불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주요 내·외빈, 터키 국민, 외국인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석,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김관용 조직위원장은 개막기념사에서 “동서 문명의 교차로인 이스탄불에서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문화를 통해서 미래를 확신하게 돼 자랑스럽고 감개무량하다”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문화융성과 인류공영의 희망 메시지를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한국과 터키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21세기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튼튼한 다짐들을 놓았다”며, “양국이 문화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간 40개국 참가 46개 행사 펼쳐

경상북도와 경주시, 이스탄불시가 공동 주최하고,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양국 문화관광부와 유네스코, UNWTO(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 등 18개 기관이 후원했다.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신라를 비롯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문화가 한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전시, 공연, 영상, 체험, 특별행사 등 8개 분야 46개의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찬란한 전통문화와 IT강국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한국문화관’, 한국 국악과 판소리, 사물놀이 등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진수를 알린 개막축하연주회 ‘한국의 소리 길(코리아 판타지)’, 신라금관 등 국보급 유물을 전시한 ‘한국문화재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주관)’ 등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였다.

신라를 소개한 최고의 뮤지컬 ‘플라잉’과 ‘신국의 땅 신라’, 이스탄불 최대 변화가에서 펼쳐진 ‘길놀이 퍼레이드’, 전국 13개 시·도 대표 공연단 공연, 한국의 숨결을 사진으로 보여준 ‘한국대표작가 사진전’ 등이 열려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

한-터 문화예술계 거장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고 양국의 문화를 서로 체험·교류하는 다양한 행사도 시선을 끌었다. 한·터 예술합동교류전, 한·터 전통페션쇼, 한·터 문화심포지엄, 한·터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한·터 차(茶) 문화교류,

한·터 전통문화체험 등으로 1천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과 터키의 오랜 우정을 문화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이다.

영화배우 한가인, 세계적인 거장 김기덕 감독 등이 참석한 ‘터키·한국 영화주간’, 슈퍼주니어, FT아일랜드, 엠블랙, 비스트, 미쓰에이, 에일리 등 터키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6개 팀의 아이돌 그룹이 출연하여 1만석 규모의 이스탄불 윌케르 아레나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K-POP 페스티벌’, ‘태권도 시범단 공연’, ‘비보이 퓨전공연’은 터키와 유럽지역의 한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현지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9개 나라의 풍물과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실크로드 بازار’와 21개 나라 전통 공연을 선보인 ‘세계 민속공연축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비잔틴과 오스만 제국, 서양과 동양이 공존하는 아야소피아와 블루모스크 옆에서 펼쳐져 지구촌 문화화합의 페스티벌을 연출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이 참여한 ‘한국기업 홍보관’, 경북과 경주의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는 ‘경상북도·경주시홍보관 (23개 시·군 참여)’도 차려져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터키 시장 개척 로드쇼 (한국콘텐츠진흥원)’, ‘K-Food 홍보관(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관광 사진전(한국관광공사) 등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연계행사로 함께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ISTANBUL-
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3

6.25 정전 60주년 맞아 참전용사에 감사행사

특별히 8월 31일에는 이스탄불 뷔트피크르다르 컨벤션전시센터에서 6.25 정전 60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와 국가보훈처, 해군본부와 공동으로 '한국전쟁 터키 참전용사 초청 감사행사'를 개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박순춘 국가보훈처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카디르 톱바쉬 이스탄불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투란 쇼크메즈 터키참전용사회 한국전참전용사회장, 양국 주요인사와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 4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순항훈련을 마치고 지난 8월 29일 이스탄불에 입성한 대한민국 해군 군악대의 웅장한 식전공연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정전 60주년 기념메달을 터키참전용사 대표에게 수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참전용사들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대한민국의 영원한 은인이며, 위대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은 터키의 도움에 보답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카디르 톱바쉬 이스탄불 시장은 "어렸을 때 한국전에 참전하는 용사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가던 배를 기억한다. 또 전사자 가족들이 오열하던 모습도 생생하다"며, "그분들의 희생과 피땀이 한·터 교류의 초석을 놓았고, 전쟁이 우리를 혈맹의 관계로 만들

었다. 우리는 뜨거운 피를 나는 형제(칸카르데쉬 Kankardesh)다"라고 강조했다.

투란 쇼크메즈(85세) 한국전참전용사회장은 "한국전쟁 때 총상을 입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대한민국을 도와줬다는 데 대해 평생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 1950년대로 돌아가도 한국전에 참전할 것이며 터키 8천만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뜨거운 형제애를 드러냈다.

이날 대구경북국제교류협회(대표 석정달)는 한국전 참전 터키용사 위문금 18,000리라(1천만원 상당)를 터키참전용사회 이스탄불지회에 전달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손잡고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아리랑'을 합창하는 것으로 감사연을 마무리했다.

터키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이 참전하여 약 3천명이 고귀한 희생을 치렀다.(※참전 연인원:14,936명) 이번 행사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을 계기로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UN참전국을 직접 찾아가서 정부와 공동으로 보은행사를 개최해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



그 길에 옛 선조들의 발자취가 있었네!

실�크로드 거점국가와 네트워크 구축, 문화·통상 교류 기반 마련

'경상북도 실�크로드 탐험대'가 경주에서 터키 이스탄불에 이르는 1만7천여km 실�크로드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9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출발하여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을 거쳐 터키 이스탄불까지 1만 3천km를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이동하여 8월 30일 터키 이스탄불에도



'경상북도 실�크로드 탐험대'는 1차로 지난 3월 2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국내구간으로 경주에서 대구, 안동 도청이전지, 상주, 충주, 화성 당성 등을 거쳐 평택항에 도착, 3월 24일 중국 위해항으로 출발하여 상해, 항주, 소주, 남경, 정주, 낙양 등 실�크로드의 주요루트였던 중국 도시들을 순회하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4월 4일 중국의 실�크로드 중심도시인 시안(西安)에 도착하여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2차 탐험대가 7월 17일 중국 시안을

작했으며, 8월 31일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개막행사에서 입정식을 끝으로 실�크로드 대장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주요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감속성 둔황 일원에서 실�크로드 둔황(란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아시아 구간에서 달라스 전투지를 답사하였으며 고선지 장군 역사 배우기, 실�크로드 카라반 체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과 어울림 행사, 한-중앙아 실�크로드 미니포럼과 경제통상 초청토론회 등을 통하여 현지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란지역에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기술된 페르시아지역 답사와 기록을 확인, 이슈화하는 '페르시아 혜초의 길' 함께 걷기와 '쿠쉬나메 신라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연구와 인식이 부족했던 페르시아와 신라간 교류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신라와 페르시아 간 역사교류를 기념하는 '페르시아 실�크로드 우호선언 및 기념비 제막'도 함께했다.

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한 터키구간에서는 엑스포 성공기원 실�크로드 한류행사,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행사 등 터키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홍보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실�크로드 탐험을 통해 신라의 개방성과 국제성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문화경복의 위상을 높이고 실�크로드 거점국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통상 교류를 확대하는 등 '21C 新한류문화' 선도에 막중한 임무를 완수한 탐험대원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실�크로드 거점지역 4개국에 우호협력 기념비 설치]

경상북도는 9월 1일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인 터키 이스탄불시 갈라타 타워 광장에 '실�크로드 우호협력 기념비'를 설치했다.

경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5일 중국 섬서성과 자매결연 체결과 동시에 섬서성 시안(西安)에 첫 번째 실�크로드 우호협력비를 설치했으며, 8월 2일에는 오아시스 실�크로드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역사도시인 사마르칸트시에 두 번째 우호협력비를 설치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이란 이스파한시에 세 번째 실�크로드 우호협력비를 설치한 바 있다.

실�크로드 우호협력 기념비 설치사업은 실�크로드 거점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북도에서 올해 초부터 공들여온 사업으로, 오는 11월 4일 경주엑스포 공원에 실�크로드 거점국가와의 우호협력을 기념하고 경상북도가 실�크로드의 거점도시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다섯 번째 기념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가 2014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경상북도는 8월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철우 경북도당위원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 지역 국회의원과 도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사항 및 2014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 경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인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대한민국 실크로드 프로젝트',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새마을운동 세계화',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용 도지사, 새 정부 국비예산 확보에 동분서주

당정협의회, 국회예결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 현안사업 건의



또한, 한중 FTA의 선대책 후타결 원칙 고수와 FTA 피해농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건의하고, 2014년 국비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어느 해 보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 막 시작된 경북의 기간도로망 등 SOC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마무리 단계에서 톱플레이를 통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올러 지난 7월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 발표 이후 '대선공약 조기추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북도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어 있는 대선공약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대선공약 조기 가시화와 관련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당정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지역 공약의 조기구체화와 국비예산 확보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사업을 지켜내면서 증액사업을 반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8월 27일 새누리당 당정간담회에 이어 이근현(경남 통영·고성) 국회예결위원장,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격 방문, 2014년도 경북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총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 첫 해에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중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이병석(포항북) 부의장, 이철우(김천) 경북도당위

원장, 김광림(안동) 예결위원회 간사,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함께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등 SOC사업 6건 1조원,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1천억원,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1,500억원 등 1조 2,000억 원을 증액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 지역 SOC사업은 타 지역과 달리, 대부분 국가 기간도로·철도망으로 지역의 특혜성 사업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는 국가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단계별 활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B14(Budget 2014)-TF팀(본부장 주낙영 행정부지사, 11개반 64명)을 구성하고 행정·정무부지사와 실국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국비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시 마다 "새 정부 초기는 국비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실국장이 책임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지시하고, 직접 국비 확보 상황을 챙기고 있으며, "국회 최종의 결시까지 출항인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2014년도 대규모 시책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여건 속 수출 300억불, 흑자 200억불 달성!

경북도 무역 흑자 1위로 전국 성과의 91%



경상북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전국의 수출실적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누적성과 기준)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7.2%(전국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 증가한 305억 9,500만 달러를 기록, 전국 최고 수준의 수출증가율과 함께 수출 총액 전국 5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눈에 띄는 실적을 보였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도 2012년 9월 이후 11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면서, 올해 1~7월간 흑자 총액 204억 달러, 전국 흑자의 91%를 차지하는 등 국가 수출의 기동으로서의 주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 수출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 38%, 브라질 29.6%, 베트남 23.4%, 홍콩 20.2%, 일본 7.4% 순(상위 수출10개국 중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10개 수출품목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전자용 용기(136%), 무선통신기기(33%), 무선통신기기부

품(29.6%), 자동차부품(15%) 순이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경북도가 그 동안 중점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무역사절단 2회, 전시무역박람회 6회 등 전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어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북도의 통상 성과는 무엇보다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3.0 전략 등에 대응한 수출기업 맞춤형 통상 지원사업과 실크로드 경제통상 전략사업 등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연계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북도는 FTA를 비롯한 세계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민생경제발전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지역 영세·소규모 수출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3.0전략에 따른 기업 맞춤형통상지원 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 지역 중소기업이 원하는



유형의 맞춤형 기업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SNS 홍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영세·소규모 수출기업을 특별히 보호·지원하고 수출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중소Plus+ 단체보험' 사업 등 다양한 통상시책 사업들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국제화 전략사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협력차원에서 '코리아 실크로드프로젝트',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과 연계한 "실크로드 경제통상 그랜드 바자르 사업" 등 실크로드 통상중대 사업도 중장기적인 기반구축을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대표적인 전략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실크로드 통상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섬서성 동서부경제무역박람회, 5월 터키 이스탄불 섬유기계전시회에 지역의 30여개 업체가 참가하여 실크로드 경제통상 영토 개척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동서부경제무역박람회에서는 계약추진 386만 달러, 수출상당 9억9천만 달러, 현장계약 100만 달러의 성과와 함께 3천만 달러의 투자기술협약 성과도 함께 거두었다.

터키 섬유기계전시회에 참여한 도내 기업들도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으며, 지역의 9개 업체가 수출상당 2천370만 달러, 계약추진 1천462만 달러, 현지 계약액 264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실크로드 통상사업의 대표적인 전략지역인 터키섬유기계시장은 아시아, 중동, EU 및 동유럽 진출을 위한 경제 요충지로서의 기능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터키 FTA 발효를 통해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러한 상반기 지역 수출실적과 주요 통상정책의 성과 가시화를 바탕으로 관련 수출 지원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실크로드프로젝트와 연계한 실크로드 통상전략사업도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3.0 전략형 통상서비스정책 확대 강화를 위해 중소 영세수출기업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사업을 늘리고 중견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새롭게 검토·추진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지역 내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지원, 환위험 관리교육, 상담센터 운영과 선적 전 수출이행자금 등 수출금융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KTX 와 함께 이는 경북 고택 스테이 Go! Go!

경상북도-한국철도공사 협력,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경상북도는 코레일과 협력하여 “KTX와 함께하는 고택 스테이”를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북의 우수한 고택·종택과 코레일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택과 종택을 보유한 경북의 관광인프라를 적극 활용, 새로운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KTX와 함께하는 고택스테이 체험은 시·군별 KTX와 연계 가능한 지역(경주 - 양동마을, 수오재, 서약서원, 종오정 / 고령 - 개실마을)의 명품 고택을 선정, 코레일 역사에서 고택까지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상품성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코레일은 KTX 요금할인, 코레일 홈페이지 상품등록, 전국 코레일 여행상담 센터망을 통한 홍보 및 판매, 도에서는 수도권 전담 여행사 및 지역 여행사 연계모객활동과 홍보 전단지 배부, 나드리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고택상품은 단순한 숙박의 개념이 아닌, 선비문화 프로그램, 고택음악회, 전통제례, 전통종가음식 제공 등으로 조상의 맛(味), 멋(美), 예(禮)를 두루 느껴볼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고택·종택의 명품화를 위해 한옥체험업 지정,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 종가포럼 개최, 고택관리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2012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 관광객은 167,526명으로 2011년 135,258명 대비 2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의 고택이 한국의 대표적 고풍적 한류자원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백두대간열차와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를 연계한 고택 패키지 이용권(고택+열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X와 함께하는 고택스테이 상품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최초 인증제 시행, 전국의 36% 차지

전국 최다 한옥 보유한 경북도의 전통한옥 활용 노력 인정

경상북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전통한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옥스테이 인증제’ 심사에서 도내 한옥체험업 지정 전통한옥 중 86개 한옥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제는 올해 4월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전국에 산재한 전통한옥 390개소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239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이중에서 경북도가 86개 한옥이 선정됨으로써 전국의 36%를 차지했다.

한옥스테이 심사기준은 욕실 및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한옥체험업 지정을 받고,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등 위반건축물이나 노후·불량 건물이 아닌 전통한옥이 대상이다.

경북도내 한옥체험업 지정업체는 197개소로 이 중 44%가 한옥스테이 인증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옥(40%)을 보유한 경북도가 전통한옥의 이미지 제고와 활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옥스테이 인증업체는 지정로고 및 상표권을 부여, 각종 홍보물 제작 지원과 광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물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독도는 울진 수토사(搜討使)가 지킨다! 조선시대 독도에 관리 파견한 수토사 뱃길 재현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독도사랑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울진 구산리 대풍헌, 울릉도 일원에서 진행, 전문가와 기업인, 공무원, 학생 등 80명으로 제1기 수토문화 탐사단을 구성, 조선시대 울릉도·독도 관리를 위한 수토 제도와 그 유적을 탐방했다.

행사개최지인 구산항은 조선시대 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한 수군(水軍)인 삼척진장과 월송만호의 수토사(搜討使)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역사적 장소이다. 울진군은 당시 수토사들이 바다의 순풍(順風)을 기다리며 머물렀던 대풍헌(待風軒)과 고문서인 수토절목(搜討節目) 및 원문(完文)을 발굴하여 각각 기념물 제165호와 문화재자료 제511호로 지정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울진 대풍헌과 수토사 관련 사료에 의하면 현재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일대는 조선시대 정부의 울릉도와 독도 수토의 기점지역으로, 19세기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료로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어 2010년 1월 대풍헌 건물을 해체하여 원형을 찾아 복원했다.



경북도, 독도 주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경상북도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8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45일간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독도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8월 20일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양수산부·경상북도·울릉군·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경북도는 올해 독도주변 수심 30m 이내인 100ha에 이르는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폐기물 분포 실태조사와 수거처리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쓰레기 침적량을 감안하여 사업 단계별로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독도주변 해역의 쓰레기 전량수거를 목표로 해양 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생존 독도의용수비대원 방문 격려 국토수호와 나라사랑 정신의 표상에 감사의 마음 전달

경상북도는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시절 순수한 애국심으로 일본의 독도침략 야욕을 온 몸으로 막아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독도수호 노고에 대하여 300만 도민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가족들을 격려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8월 16일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포항시에 생존해 계시는 최부업(82세)씨와 하자진(87세)씨 자택을 방문, 격려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또 정무호 독도정책과장과 강철구 울릉부군수가 나머지 생존 대원 7명과 유족 13명을 찾아 도민들의 마음을 전달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6.25전쟁이 끝나가던 무렵인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일본의 도발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뜻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활동한 순수 민간조직으로 독도경비 임무를 경찰에 이관하고 해산할 때까지 33명의 대원이 활동했으며,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은 총 9명으로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이다.



경북도, 광복절 맞아 독도 선착장 태권도 시연

경상북도는 제6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경북의 혼으로 독도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8월 15일 독도 선착장에서 태권도 시연을 펼쳤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한국마이스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태권도본부 어린이시범단과 경북 아리랑시범단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고유무예인 태권도 시범과 독도깃발 퍼포먼스를 개최, 300만 도민과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독도영토 수호의지를 표현했다.



독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독도수호 전략으로... 반크와 경북도가 함께하는 글로벌 독도 홍보 전략가 양성

경상북도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8월 22일 서울역 사박물관 강당에서 독도와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하면서 미래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 양성을 위한 글로벌 독도 홍보 전략가 교육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교육에 참석한 100여명의 청소년들은 경상북도,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반크의 독도정책 담당자들로부터 각 기관의 독도정책과 전략에 대한 특강을 듣고, 독도 수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독도 영문만화 'The Dokdo Story' 수정본 발행 '만화로 풀어나가는 독도 이야기' 영문판 재발행



경상북도는 독도 영문만화 'The Dokdo Story' 수정본을 발행했다.

'The Dokdo Story'는 16절 크기에 총 80쪽(표지 포함) 분량으로 1부는 독도의 일반현황, 자연환경, 역사적 사실, 독도를 지킨 사람들, 일본의 오류를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독도관련 역사 문헌 및 정보를 소개한다.

특히, 독도 영어만화는 현재까지 총 3만 2천권을 제작하여 해외교육기관, 공공기관, 독도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배부했으며, 독도 문제에 있어서 제3자인 외국인들에게 독도가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독도 영문만화 개정판에는 2013년 8월 초까지의 최근 독도현황과 지난해 독도국가지질공원 인증, 독도의 천연자원(하이드레이트), 도로명 주소 및 주석 등을 첨가했다.

또한, 설명 위주로 구성된 2부에서는 영어권 외국인들의 대한민국 독도영유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문장을 재구성하고 편집해 독도문제가 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에 대한 근거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 한국의 논거가 타당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정본의 발행을 위해 경북 독도수호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의 이희은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독도 만화는 2008년 10월에 한국어판으로 최초 제작, 이듬해인 2009년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독도 해외홍보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 담당부서 : 독도정책과 053)950-3068

"독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포켓책자 발간 독도의 역사적 진실과 울릉도·독도 기본지식 수록

경상북도는 독도 및 울릉도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독도의 진실과 기본현황을 소개하는 "독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포켓책자를 발간, 포항에서 울릉도, 울릉에서 독도까지 운항하는 여객선에서 볼 수 있도록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 비치, 탐방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한다.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진실과 울릉도·독도의 기본지식을 모든 국민이 다 공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여행하는 동안 지루함을 달래고 독도를 아는 만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책자는 독도를 3편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제1편은 '독도는 우리땅'으로 독도의 행정구역, 위치, 면적 등 기본 현황과 법적지위, 행정관리 현황, 기후, 지형과 지질, 식생 및 생태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2편은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10가지 진실'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10가지 내용에 대해 팔도총도,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한 돗토리번 답변서, 울릉도 도해금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원록9명 자년 조선주척안일권지각서 등 고문헌과 고지도, 옛문헌사료 등 역사적 사실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제3편은 '독도·울릉도 관광'으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주요 명소와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울릉도 주변 볼거리와 먹거리를 관광객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하여 찾을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소개했다.

▶ 담당부서 : 독도정책과 053)950-3076



Dokdo,
 a beautiful island of Korea

경북·울산·강원, 신동해안 비전발표 및 공동선언 선포

환동해 경제권 비전 실천을 위한 동해안 발전 6대 전략 발표



경상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가 신동해안 상생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모았다!

경상북도는 9월 5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동해안권 15개 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 관련단체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동해안 상생발전 비전발표·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경북, 강원, 울산 동해안의 3개 시도가 신동해안 시대를 개척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새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생·공존·공영의 바다! 동해'라는 비전아래 '미래 해양산업의 거점 조성', '국민힐링 공간 창출'이라는 2대 목표와 6대 발전전략으로 '해양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화', '고부가가치 첨단수산업 육성', '환동해 항만물류 특화기반 조성', '융복합 해양관광산업 육성', '원자력·그린에너지 벨트 구축', '깨끗한 해양환경과 안전한 바다 조성'이라는 '신동해안 상생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해안 상생발전과 신해양시대 개척을 반드시 실현 하고자 하는 600만 동해안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이를 실천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신동해안발전 공동선언'을 3개 시·도가 함께 선포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 환동해 시대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동해안 3개 시도가 긴밀한 협력으로 해양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블루오션을 함께 개척하여 동해안을 대립과 낙후의 바다에서 상생과 협력이 있는 경제의 바다로, 감성과 창조가 살아 숨 쉬는 문화의 바다로 만들어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금까지 동해안 3개 시·도는 동해안시도지사협의회 구성과 동해안발전포럼 운영 등 동해안상생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역사·문화, 해양·관광 등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환동해경제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전자 시험평가기반구축 추진, 2013경북국제항공포럼 개최 항공전자산업 아시아 허브 구축 시동!



경상북도는 국내 항공부품산업 육성의 첫 단추가 될 '항공전자 시험평가기반 구축사업'을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간 국비 220억원, 지방비 150억원 등 총 370억원을 투입하여 영천시 녹전동 일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부근에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지난 5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항공전자 시스템기술센터)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는 항공전자 시스템의 BOX류, CARD류, 소프트웨어류의 기능 시험평가, 환경 시험평가, MRO 검사/진단 시험평가가 가능한 센터 및 온·오프 시험 평가실, 충격 충돌 시험 평가실, 진원 전력 시험 평가실, 통신 시험 평가실, MRO 자동점검 시험평가실 등 전문시험평가실 5개실이 구축되고, 총 20여종의 시험 평가 장비, MRO 자동 점검 장비들이 구축될 예정이다.(MRO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수리, 정비, 제조))

센터는 항공전자 국제인증 규격가이드 개발 및 보급으로 산업진흥 희망업체에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절차 제도화 등 시험평가 절차 표준화를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항공기업의 유치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10년 9월 자체 최초로 '2010경북국제항공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앞으로 경북국제항공포럼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 국제 컨퍼런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으로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제2회 경북국제항공포럼'을 경북도·영천시·보잉사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편, 보잉은 영천 MRO 센터 건립을 위해 5월 설계용역사를 선정하고, 10월경 건축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10월 중 착공하여 2014년 하반기 중에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영천시는 임대 부지 마련, 진입로 등 기반 시설, 행정 인·허가 등 보잉의 항공전자 MRO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보잉 유치를 발판으로 국내·외 항공기업, 연구기관 등 항공산업 집적화와 항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영천 하이테크지구 일대에 항공전자부품 특화단지 조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 KBS 양해각서 체결

전국 시범사업으로 안테나, 중계기 무료설치 지원

경상북도는 7월 29일 도내 디지털 TV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수신환경 개선 및 난시청 해소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KBS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북도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과 행정 지원을, KBS는 대상자 확정 및 설치검수를 맡게 되며, 안테나, 소출력 중계기 등 설치사업은 디지털시청100% 재단이 추진한다.

TV수신환경 개선과 난시청 해소 시범사업은 도민의 자부담 없이 KBS와 디지털시청100%재단이 무료로 설치 지원을 하게 된다.

난시청해소 범위가 50세대 이상인 지역은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를, 50세대 미만인 지역은 마을공시청을 신청에 따라 무료로 설치해준다. TV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로 안테나, 컨버터 등을 설치·교체를 원하거나, TV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을 하면 된다.

안테나와 난시청 지역의 중계기 무료 설치 등 관련된 신청 절차와 설치 및 검사는 신청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청 통신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청을 통해 신청한 세대는 도에서 검토를 거쳐 디지털시청100% 재단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무료로 설치해준다.

KBS는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안테나 등 무료설치 지원인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2013년 12월 까지, 중계기 및 공시청 무료 설치지원은 2014년 말 까지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방송수신환경이 좋아져 밝고 선명한 TV시청이 가능하며, TV직접 수신이 어려워 유료 방송을 시청하는 세대도 직접수신이 가능하게 되어 도민들에게 보편적 TV시청권을 보장하게 된다. 특히, 무료설치 이후 유지관리는 디지털시청100%재단이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에는 높은 산이 많아 산간 오지마을 일부에는 TV시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TV수신 환경이 좋아지게 됐다”며, “정부 3.0 시대를 맞아 도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도민행복의 시대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감염 주의합시다!

진드기 매개 쯤쯤가무시증 집중 발생하는 계절 주의 당부

경상북도는 가을철에 발생하는 쯤쯤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렘토스피라증, 증중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9월에서 11월에 주로 병원체의 활동이 증가하여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추석을 전·후한 성묘·벌초 등으로 산과 들에서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을철 집중 발생율 : 쯤쯤가무시증(90%), 렘토스피라증(80%), 신증후군출혈열(60%))

특히,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쯤쯤가무시증은 가장 주의해야 할 가을철 감염병으로 두통·발열·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신증후군출혈열은 들쥐의 배설물

이 건조되어 공기 중에 날리면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고, 렘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소변 등에 오염된 물과 흙, 음식 등에 접촉했을 때 감염 될 수 있다. 또한 참진드기를 매개하는 증중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을철 발열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행지역 및 들쥐 등과 접촉하는 환경을 피하고, 밭에서 일하고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해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 감기 몸살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며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급성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건강행동수칙

SFTS, 쯤쯤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질환 건강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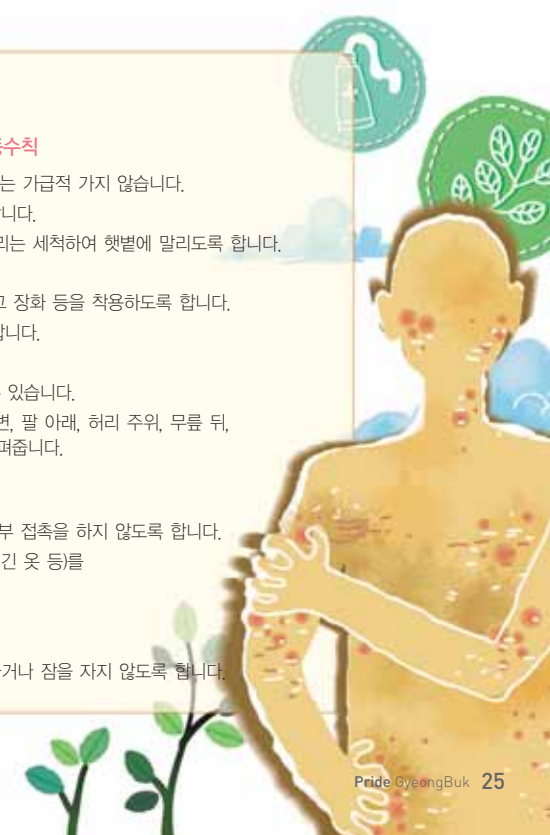
-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수풀, 나무 우거진 곳 등)에는 가급적 가지 않습니다.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짐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 풀밭 위에 앉을 경우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도록 합니다.
-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도록 합니다.
-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 등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즉시 입었던 옷을 털고, 꼭 세탁합니다.
- 집에 돌아온 후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아동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주위, 무릎 뒤, 다리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줍니다.

렘토스피라증 건강행동수칙

- 쥐 등의 설치류 배설물에 오염된 젖은 토양, 물과의 피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벼 베기 작업 및 흙수 뒤 벼 세우기 작업 보호구(장화, 긴 옷 등)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신증후군출혈열 건강행동수칙

- 들쥐의 똥, 오줌이 배설된 풀숲, 풀밭에서 옷을 벗어 눕거나 짐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떠나는

'문학여행'

가을하늘을 벗삼아 고즈넉한 문학관에서 풀어오는 문향에 잠시 모든 걸 잊어봅니다

경주 동리목월문학관

한국문학의 양대 산맥인 소설가 김동리, 시인 박목월 선생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설가와 시인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두 거장의 손 때 문은 흔적들을 적절 확인할 수 있다.

☎ 경주시 불국로 406-3
☎ 054-772-3002 ☎ www.dmgyeongju.com



안동 이육사문학관



독립에 대한 열정을 문학으로 표현한 항일운동가 이육사, 옥필 원고, 독립운동 자료, 시집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던 이육사의 문학세계를 느낄 수 있다.

☎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
☎ 054-840-6593, 852-7337 ☎ www.264.or.kr

영양 조지훈과 주실마을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고향인 아늑한 분위기의 주실마을, 마을에는 그가 태어난 생가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지훈문학관'이 있다. 문학관 주변 언덕의 지훈시공원을 걸으며 시인의 시를 감상해 보는 것도 좋다.

☎ 영양군 임월면 주곡리 222
☎ 054-682-7763 ☎ jihun.yyg.go.kr



영양 이문열과 두들마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유명한 한국문학의 거장 이문열의 고향으로 다양한 문인들을 배출해 낸 문학의 고장이기도 하다.

☎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 017-533-8154 ☎ www.dudle.co.kr



영양 오일도와 감천마을



감천마을은 애국시인 오일도의 생가와 시공원이 있는 곳으로 예술지상주의를 꽃피게 한 그의 다채로운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 054-680-6062 ☎ tour.yyg.go.kr

청도 이호우, 이영도 생가(오누이공원)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조시인으로 불리는 이호우와 그의 여동생 이영도의 생가와 공원. 아늑하고 소박한 분위기가 오누이가 전하는 문향과도 달은 듯하다.

☎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 054-370-6114 ☎ tour.cheongdo.go.kr



칠곡 구상문학관



프랑스 문인협회가 선정한 세계 200대 문인 중 한사람으로, 우리나라 현대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구상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다.

☎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191
☎ 054-973-0039 ☎ kusang.chilgok.go.kr

신명나는

'경북 가을축제'

함께라서 더 즐거운 축제의 장!
오직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흥겨움, 기분 좋은 북적임...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꿈꾸는 세상, 영웅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화려하면서도 신명나는 탈춤 세계를 만날 수 있다.

▶ 2013. 9. 27(금) ~ 2013. 10. 6(일)
☎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 054-841-6397
☎ www.maskdance.com



영주 풍기인삼축제

만고의 영약이라 불리는 풍기인삼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으며 최고의 웰빙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 2013. 10. 3(목) ~ 2013. 10. 9(수)
☎ 영주시 남원천 일원
☎ 054-635-0020 ☎ www.ginsengfestival.com

영천 한약장수축제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한방 특구 영천 은은한 한방향이 맡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지는 듯하다.

▶ 2013. 10. 2(수) ~ 2013. 10. 6(일) ☎ 영천시 영천강변공원
☎ 054-339-7281 ☎ herb.yc.go.kr



문경 사과축제

사과 낱시, 사과엽서쓰기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며, 특히 사과따기체험이 가장 인기가.

▶ 2013. 10. 12(토) ~ 2013. 10. 27(일) ☎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 054-550-6887 ☎ mgapple.kr

문경 오미자축제

붉은 빛이 넘실대는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오색 오미 문경 오미자를 만날 수 있다.

▶ 2013. 9. 20(금) ~ 2013. 9. 22(일) ☎ 문경시 동로면 일원
☎ 054-554-7555 ☎ www.5mija.kr



청송 사과축제

수려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명품 청송사과를 맛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즐거움을 더한다.

▶ 2013. 11. 8(금) ~ 2013. 11. 11(일)
☎ 청송군 청송사과공원 ☎ www.csapple.kr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

숲의 보물이라 불리는 송이를 이용한 송이요리대회, 송이향기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 2013. 10. 4(금) ~ 2013. 10. 6(일)
☎ 울진군 울진엑스포공원
☎ 054-782-1501 ☎ www.uljin.go.kr

울진 성류문화제

울진군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한 향토문화제로 백일장, 전국서예대전, 전통예절체험 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3. 10. 4(금) ~ 2013. 10. 6(일)
☎ 울진군 울진엑스포공원
☎ 054-782-1501 ☎ www.uljin.go.kr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선정된 걷.기.여.행 명소 |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걷는 평탄하고 부드러운 흙길 |

웰빙 바람을 타고 ‘걷고, 달리고, 오르는 것’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말 그대로 ‘길’ 열풍이다. 경북에서도 이러한 ‘길’ 열풍에 맞춰 수많은 ‘길’이 생겨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 특히 경북은 산, 바다, 계곡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걷기’에 안성맞춤인 곳들이 많다. 문경새재를 찾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선정에서 상위권에 오른 걷기여행 명소이다.

‘백두산은 남으로 삼천리를 달려와서 큰 고개를 가로질러 칠십 고을 나뉘네. 예부터 제후들 할거할 곳 있었거니 지금 까지 그 요새 흔적이 있다네. 질푸른 봉우리 거듬거듬 솟아있고 눈부신 단풍은 나무마다 아름답다. 공명을 세우기엔 내 이미 늙었거니 가던 길 멈추고 개인 하늘 볼밖에.’ 조선중기 문학가인 김만중(1637~1692)이 새재를 넘어 지은 시조다.



그 옛날 새들도 쉬어간다는 높고 험준한 고개인 문경새재는 많은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걸었던 길이다.

조선 태종 때 이후로 약 500여 년 동안 한양과 영남을 잇는 가장 번듯한 길이었다. 당시 한양에서 동래까지 가는 고개는 모두 3개로, 추풍령과 문경새재, 죽령이 있었으나 문경새재가 열나흘 길로 가장 빨랐다. 추풍령은 보름 길, 죽령은 열여섯 길. 하루 이틀 사이였건만 문경새재는 과거시험 치는 선비들이 유독 고집했다.

당시 선비들 사이에 추풍령은 낙엽처럼 떨어지고 죽령은 대나무처럼 미끄러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 문경새재를 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선비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문경새재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다.

과거길은 영남 제1관문인 주흘관을 지나면서부터 시작된다. 개울을 벗 삼아 정갈한 흙길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모두 이곳에선 느릿느릿한 걸음 걸이로 편안하면서 결코 빠르거나 성급하지 않게 걷는다.

주흘관을 지나 제2관문 조곡관까지는 3km로 경사가 낮아 쉬엄쉬엄 걷기 좋다. 조곡관 바로 앞에는 조곡교(鳥谷橋)가 개울 위로 걸쳐 있다. 조곡관을 지나 조금 올라가다 보면 시조길이라는 뜻말이 보인다. 이곳은 옛 선비들이 새재에 대해 지은 시조가 바위에 새겨져 있어 시조를 읽으며 걷는 재미가 있다.

제3관문인 조령관으로 이어지는 길은 고즈넉하다. 숲이 깊어지면서 숲 냄새가 걷는 이의 몸과 마음을 감싸 안은 느낌이 든다. 조령관이 문경 과거길 끝 지점이다.

정갈한 흙길이 매력인 이 길이 아직 비포장으로 남아있게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덕이라 한다. 1970년대 중반 문경을 순시하다 무너진 성벽 위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차량통행금지를 명령했다고.

문경새재 과거길은 총 14km 구간으로 4시간 정도 소요된다. 부드러운 흙으로 된 평탄한 길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 경상북도 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 김락현 기자



라모스 필리핀 前대통령, 새마을운동 전수해 주세요!

김관용 도지사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확대 요청

김관용 도지사는 7월 25일 경상북도를 방문한 피델 라모스 前 필리핀 대통령을 맞아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과 필리핀에 새마을운동을 확산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라모스 前 대통령은 “필리핀에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확대”를 요청, 이에 김관용 도지사는 “필리핀 현지 마을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와 새마을리더 봉사단 파견 및 시범마을 조성 사업지 추가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델 라모스 前 필리핀 대통령은 4박 5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미 새마을역사관, 민족증후관, 박정희 대통령생가 등 경북도의 새마을 현장을 방문했다.

경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UN 빈곤퇴치 모델로 부상

반기문 UN사무총장 및 주한외교단 조찬 포럼 사례발표

김관용 도지사는 8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각국 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조찬 포럼에 참석,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한 가난극복 성공사례를 단독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UNWTO ST-EP 재단(이사장 도영섭)과 월간 외교잡지인 디플로머시(Diplomacy)가 공동 주관했으며, 8월 2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한아프리카대사 및 미국, 영국 등 G20 회원국 대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2015년까지 UN의 MDGs 목표달성과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의제 발 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 경북 농업명장에 인증패 수여

오미자 명장 문경 윤창영씨, 참외명장 성주 이경수씨

경상북도는 8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올해 경북 농업부문 최고의 영예인 경북 농업명장에 선정된 문경시 동로면에서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는 윤창영씨와 성주군 용안면에서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이경수씨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선정된 농업명장에게는 향후 1년간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신기술 보급·전파를 위한 기술교육장 운영비 1천만원이 상사업비로 지원되며, 향후 영농기술 교육강사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북 농업명장은 농업분야 최고 권위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12번째로, 매년 2명씩 선발하여 지금까지 총 22명의 품목별 농업명장을 배출했다.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대중교통 이용 시대 성큼!

국토교통부 및 전국 시·도와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9월 3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시외·고속버스 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그 간 릴레이 협약 참여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4개 특정부문(철도, 고속도로, 시외버스, 고속버스)이 모두 참여하여 과장급 실무협약을 추가로 체결, One Card All Pass(한 장의 카드로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 이용) 실현이 경북지역에서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착한운전으로 교통사고 줄이자!

경북도-경북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8월 20일 경북지방경찰청 소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김귀찬 경북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과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2013. 8.1 시행)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2013 한-터키 수출농업 세미나 개최

경북도, 터키와 농업분야 국제 경쟁력 향상 위하여 손잡는다



경상북도는 9월 2일 터키 이스탄불 Elite World Hotel 및 9월 4일 터키 부르사주 농식품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2차례에 걸쳐 터키 이스탄불 및 부르사주에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의 공식 연계행사로 한국과 터키 양국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3 한-터키 수출농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주관, 한국의 건강한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 “형제의 나라, 함께 하는 참살이”라는 주제로 경북도에서 생산한 식용버섯 및 버섯 가공품을 전시하는 등 터키의 농산물 수입 바이어, 이스탄불 지역 호텔 요리사, 터키 버섯재배농민들에게 경북 버섯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증서 수여

국내복귀, 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 6개사에 75억 지원



경상북도는 9월 5일 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국 강소성에서 철곡군으로 복귀한 F사, 수도권에서 고향으로 본사를 이전한 (주)한국인닥타셀, 지역기업인 영천의 (주)금창, 김천의 (주)미래, 칠곡의 (주)에스지, (주)력스코 등 6개 기업체 대표에게 보조금 지원증서를 수여했다.

투자촉진보조금은 해외진출기업과 수도권 기업이 경상북도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경상북도의 특화산업과 선도산업 및 지역집중유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생산시설을 도내에 신·증설하고 10%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 설비투자금액의 7~22%를 지원하며, 국내복귀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역발전위원회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 대구·경북설명회

김 도지사, “여전히 지방의 현실은 외면당하고 있다” 역설

경상북도는 8월 12일 도청 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지역발전정책 관계 전문가, 대학 산학협력단, 시·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대구·경북지역 설명회를 개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여전히 지방의 현실은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최근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 등 중앙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균형발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로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의 골을 깊게 해서는 국가발전을 생각할 수도 없다”며,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경북 농·수산·해양산업 발전에 주목!

하맹구 부우노 10세 주지사, 수산·농업 벤치마킹 위해 경북도 방문

김관용 도지사는 9월 6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하맹구 부우노 10세 주지사와 농·수산 분야 주요 간부, 의원 등 11명의 방문단을 맞아 경상북도-족자카르타주 양 지역간 국제교류 협력증진과 농·수산·해양 분야 교류를 위한 향후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족자카르타주 방문단 일행의 이번 방문목적은 경북도의 우수한 농·수산업 기술과 가공·유통 시스템, 선진국형 행정지원 등을 벤치마킹하여 족자카르타주의 주된 산업 기반인 농·어업에 접목하기 위한 일환으로 향후 경북도와 농·수산분야에서 장기적인 교류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청소년 유도대표팀에 유도복 전달

경상북도는 7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청소년 유도대표팀을 초청해 유도복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돈독한 체육교류를 토대로 양국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인도네시아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마린, 김관용 도지사가 선수 7명에게 손수 한명씩 유도복을 입혀주며 격려했다.



경북도, 국립청년마이스터개발원 건립 요청

경상북도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8월 7일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 정현욱 차관을 만나 숙련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청년마이스터개발원’ 건립과 ‘상주고용센터’ 설치, 올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현욱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 증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제3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

경상북도는 8월 13일 포항시 해도공원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군수, 친환경농업인 회원 및 가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최로 ‘친환경농업인의 자부심, 희망찬 경북농업!’ 이란 슬로건으로 “제3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를 개최, 지역별 우수 친환경농산물 홍보·판매행사를 갖고, 포항시 이남현씨 등 우수농업인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북도, 꿈키움 장학금 54명에 3천6백만원 전달

경상북도는 8월 1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저소득주민자녀 54명에게 3천6백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꿈키움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꿈키움 장학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1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 기금이자 발생액으로 1992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 다문화자녀 이중언어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8월 1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다문화자녀의 부모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국어 구사능력 증진을 위해 “2013 경상북도 다문화자녀 이중언어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7개 언어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경연을 벌였다.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성주에서 열려

경상북도는 8월 15일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송필갑 도의회의장, 이완영 국회의원, 김귀찬 경북지방경찰청장, 김향곤 성주군수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생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2013 소피아 농아인 올림픽 국위 선양 선수 격려

김관용 도지사는 8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열흘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3소피아농아인올림픽대회에 출전, 금·은·동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경북 명예를 세계에 떨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격려했다. 또한 농아인 선수 훈련에 힘쓴 이종학 경북농아인협회장과 이예숙 경북영광학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검사기관 지정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8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검사기관” 지정을 받았다. 최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검사는 사육중인 소의 이력정보가 도축·가공·판매단계를 거치면서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최고기 안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운동, 에너지 절약 SCHOOL 출범

경상북도는 8월 22일 세계 에너지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강당에서 이인선 정부부지사, 도의원,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 구미시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절약 School” 출범식을 개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한다.

한·중·일 전문가, 경북에서 농촌관광 발전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과 김천대학교에서 동북아관광학회 회원, 전문가, 대학생, 농촌체험마을 대표 등 한·중·일 3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로 “동북아관광학회 2013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북 친환경농산물, 서울 소비자 눈길 끌어

경상북도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최로 열린 제12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 참가, 도내 32개 농가에서 생산한 포도, 복숭아 등 우수한 품질의 신선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선보여 서울지역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

경상북도는 8월 23일 도청 강당에서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 57명 및 전문위원 5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구성된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는 건축분과, 동산분과, 기념물분과, 민속분과, 박물관분과 등 5개 분과에서 2015년 8월 22일까지 2년간 임기로 도지정 문화재 지정과 해제 등 경북도 문화재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제7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경주에서 개최

경상북도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7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개최, ‘땅은 생명, 농업은 비전! 그 희망을 열어가는 한여농!’이란 주제로 그동안 여성농업인의 발전된 위상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정도관리 평가 ‘최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한 2013년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정도관리 평가에서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검사, MMR(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바이러스 분리검사 및 항체검사, 호흡기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등 6개 분야에 대한 검사능력 숙련도 시험 전 분야 “만점”으로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터키에서 2013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상북도는 9월 2일 터키 안탈라에서 해외자문위원협의회 회장길 회장을 비롯한 34개국 60명의 해외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 도정의 국제화 지원사업과 협력활동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신임 협의회장 등 차기 회장임원단을 선출, 신임 회장으로 미동부·캐나다지역 회장인 김석주위원을 선임했다.

■ **성폭력 예방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 시범 실시**

경상북도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을 시범 실시, 유흥가 밀집지역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개 지구(포항남·북구, 경주, 안동, 구미, 경산 각 1개소)에 대해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디자인 및 환경정비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기법을 도입한 유해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 **국내 최초 '유한신육형' 참깨 신품종 개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는 국내 최초 유한형 참깨 신품종을 개발,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신육형" 참깨는 재래종 참깨의 키(150~180cm)보다 작아(120cm정도) 줄기가 튼튼해 쓰러짐에 매우 강하고, 잎 1장에 꼬투리 1개가 달리는 재래종에 비해 유한신육형은 잎 1장에 5~7개가 달려 다수확이 가능하다.



■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경상북도는 8월 28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해양관광자원 시설사업'이 최우수 등급인 S등급, 울진군에 조성중인 '스킨스쿠버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표창과 인센티브 3억원을 받았다.

■ **원자력클러스터 1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

경상북도는 원자력클러스터 조기 조성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블로그 기자단 6명을 선정, 8월 29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원자력클러스터 1기 블로그 기자단은 지역의 원자력 및 에너지 전공 대학생 등으로 구성,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자력클러스터 관련내용들을 정기적으로 포스팅할 계획이다.

■ **경북의 문화관광, 퀴즈쇼 통해 전 세계에 소개**

경상북도는 외교부, KBS한류추진단, 경주시와 공동으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글로벌 퀴즈쇼 "퀴즈 온 코리아(Quiz On Korea)"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퀴즈 온 코리아'는 대한민국 문화에 관한 서바이벌 퀴즈 프로그램으로, 세계 30개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국가별 대표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8월 31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결승전을 개최, 9월 19일 추석특집 프로그램으로 KBS1 TV(2부작 100분) 및 KBS World를 통해 전 세계 88개국에 방영했다.

■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 참가, '2013 낙동강 국제 물 주간' 홍보**

경상북도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싱가폴 국제 물 주간'과 함께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2013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Week)'에 참가하여 2015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과 2013과 낙동강국제물주간 개최를 홍보하고, 경상북도가 개최하는 '2013 낙동강 국제 물 주간'을 세계 3대 물 주간으로 준비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 **경북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종합 2위 달성**

경상북도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주 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메아리"등 25개 분임조 250여명이 출전, 금상 14, 은상 6, 동상 5개를 획득, 지금까지 대회 중 최고성적인 종합 2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시상은 오는 11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3년도 국가품질경연대회"에서 하게 된다.



■ **'세계 응급 처치의 날' 기념 대국민 재난안전 예방 캠페인 실시**

경상북도는 '세계 응급처치의 날'(매년 9월 둘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9월 4일 경산시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과 공동으로 안전문화운동경북협의회 및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재난안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 '재난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란 주제로 재난안전 국민행동요령 퍼포먼스와 교통사고 응급처치 시연을 펼쳤다.

■ **제14기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대학 입학식 가져**

경상북도는 9월 5일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선발된 교육생 95명을 비롯한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12월 13일까지 3개월에 걸쳐 새마을지도자의 덕목과 역할, 21C새마을지도자의 리더십 등 이론 교육과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된다.

■ **제3회 척수장애인재활증진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9월 6일 구미 호텔금오산 컨벤션센터에서 척수장애인인 자원봉사자,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척수장애인의 꿈'을 주제로 "제3회 척수장애인재활증진대회"를 개최, 안동시 신미희, 구미시 이월애, 경주시 이상진, 상주시 유일 등 4명에게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경주시 김응운, 문경시 손성원 2명은 경상북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 **홍콩에서 경북 신선농산물 홍보·판촉전 개최**

경상북도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홍콩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 5개소에서 현지 소비자 및 농·식품 취급 전문 바이어를 초청, 경북지역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상주 복숭아, 안동 매론, 김천 거봉포도 등 경북 신선농산물 홍보·판촉전을 열었다.

■ “일본은 동북아 지역 고립·국제미아 자초 말라!”
2013년판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규탄성명
독도 관련 ‘일본 여론조사’ 발표도 즉각 취소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7월 9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발표한 2013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또다시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함에 대해 7월 9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반성하지 못한 시대역행적인 형태”라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정치적 망동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고립을 자초함과

동시에 국제 미아로의 전략을 재추출 뿐이다”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8월 3일 일본 내각부가 8월 1일 여론조사 발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 주장한데 대해 논평을 내고 “이를 즉각 취소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내각부는 성인 3,000명을 대상(응답자 1,784명)으로 독도문제 일본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에서 ‘응답자의 60.7%가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응답하고, ‘한국이 경비 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응답도 63%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송필각 의장, 2013년 을지연습 참관, 근무자 격려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은 8월 20일 박성만, 한혜련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2013년 을지연습 중인 경상북도 충무시설 연습장 종합상황실을 방문, 훈련상황 보고 청취 및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제264회 임시회 결산〉



■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및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 ■

2014년 예산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개최, 8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전반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이어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처리하였으며, 2014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시회를 마쳤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만, 부위원장 김명호 의원 선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 부위원장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을 선출했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 마

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권영만, 김발분, 김명호, 김수용, 김영기, 박기진, 변우정, 심정규, 이상용, 이상효, 이시하, 이태식, 장두욱, 장세현, 홍광중 의원이며, 2014년 6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하게 된다.

■ 경상북도의회-경북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의회와 경북경찰청은 8월 26일 경북경찰청 회의실에서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 김귀찬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간부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체결,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문화구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는 협약서를 교환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10점)를 부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해주는 제도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산부 주차료 감면 추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욱주)는 8월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이 조례안들은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문화환경위원회, 당면 현안사항 보고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8월 26일 '포플리장학기금 운용 개선 방안', '경북관광공사 사업추진 실태 및 경영개선 방향'과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행사의 최종 준비사항' 등 위원회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회를 가졌다.

위원회에서는 포플리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와 수혜자들에게 현실적인 장학금이 지

원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고, 또 지난 8월 5일 (주)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합병·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한 경상북도관광공사로부터 각 단지별 사업추진실태와 경영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광 경북의 큰 틀을 다시 짜는 흑자 공기업 모델로 변신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단과 현장간담회 개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8월 26일 의성소방서에서 도 소방본부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단(회장 최병철, 여성회장 김모라)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용소방대 회장단은 예산 편성시 감액된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증액, 모범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지원, 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 지원 등을 건의, 장두욱 위원장은 1만2천여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위원회, 도 교육청 청사이전 등 추진상황 점검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2015년 7월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에정인 경상북도 교육청과 또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문경교육지원청의 추진상황과 신청사 건립공사 등을 점검하고, 봉화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봉화지역 폐교 재산의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했다.



또한 역사·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인기가 많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을 방문하여 직접 트레킹을 체험하고,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보다 내실 있는 체험학습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도 가졌다.

■ 농수산위원회, 영양 농기계임대사업소, 고추유통공사 현지 확인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8월 29일 영양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고추유통공사를 방문하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용 농기계 334대, 운반대행차량 2대, 지게차 2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2010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발작 물용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를 임대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고추유통공사는 저온저장고, 집하선별 포장장, 예냉실 등 시설을 갖추고, 고효율 연속 건조시스템 2기와 고추 분쇄 가공라인 1기로 연 14,000톤의 홍고추를 말려 1,000톤의 고춧가루를 생산, 지난 해 7억4천여만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 건설소방위원회, 도로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8월 29일 봉화군 운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과 영주 시 풍기~단산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하고, 8월 30일에는 원주혁신도시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추진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했다.

장두옥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생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경제위원회, 예천상설시장 방문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9월 2일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예천군 상설시장을 방문, 안길수 상인회장으로부터 시장현황에 대한 설명과 도 집행부와 예천군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장 상인회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 시급한 '노후간판 교체비 지원'을 건의, 기획경제위원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기획경제위원들은 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누어 주며 많은 이용을 부탁하면서 추석맞이 장보기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 전통향토음식 시식하며 로컬푸드 관광상품화 모색
의회구내식당에서 예천용궁순대 시식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9월 6일 경상북도 고유의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및 계승·발전시키는 일환으로 전체 도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내식당에서 예천용궁순대를 시식하며 로컬푸드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모색했다.



용궁순대는 경북 북부지방에서 서민들이 즐겨먹던 대중적인 먹거리로써 예천군에서 매년 축제를 개최, 브랜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역 고유의 음식이다.

한편 이날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은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송필각 의장은 "앞으로 향토음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의회사무처, 칠곡 왜관시장서 장보기 행사



경상북도 의회사무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9월 9일 칠곡 왜관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및 추석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송필각 의장과 김희원, 추재천 의원 등 지역 도의원들이 함께하여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지원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2월 20일까지 한우 자가 도축 한시적 허용

5명 이상 자가소비 목적 공동구매시 두당 40만원 내에서 지원

정부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12월 20일까지 소비자들에게도 한우 자가 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도축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최대 두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5인 이상이 모여 한우를 공동구매하고,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 경북도 지회(053-326-9237)에 자가소비를 신청하면 도축장과 육가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한우고기가 배송되며, 자가소비 신청자 또는 알선농가가 한우 자가소비 지원금을 지역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우량 돼지 액상정액 양돈농가에 저렴하게 공급

우수 유전능력 갖춘 미국산 원종 씨돼지 추가 도입 계획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국가의 중대개량시스템(CCSI)을 적용받는 캐나다에서 종돈 30두를 2012년도에 도입,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돼지 액상정액을 생산하여 민간에서 운영중인 센터 공급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도내 양돈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하는 돼지 액상정액은 양돈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주요 전염병 청정 돼지군에서 생산, 돼지인공수정용으로 제작된 공급팩에 위생적으로 포장, 농가 주문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생산, 보관온도를 철저히 유지 관리한 후 신속하게 양돈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해 말 도비 10억원을 들여 축사 냉난방, 환기, 급수 및 급이 시설, 정액자동이송장치 등 액상정액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사환경을 최신 설비로 갖춘 돼지인공수정센터(연면적 786㎡)를 신축한 바 있다.

또한 고능력의 다양한 우량 액상정액을 도내 양돈농가에 확대 공급하기 위해 다산(多産), 다육(多肉), 강건성 등 우수한 유전능력을 갖춘 미국산 원종 씨돼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씨돼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 담당부서 : 축산기술연구소 054)638-5013



동물(반려견) 올해 말까지 꼭 등록하세요!

계도기간 2013년 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

경상북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미등록시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포항, 경주, 안동,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지역이고, 인구10만 이하(문경시, 칠곡군 제외)한 군지역)와 도서지역(대상지역중 면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주택주거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 등록대행기관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시·군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동물 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담당부서 : 축산경영과 053)950-2938

경북 도내 소방서, 원스톱 소방민원서비스 도입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설치로 민원인의 불편 개선

경상북도는 8월 13일부터 도내 17개 소방서 및 7개 군지역 119안전센터 민원실에 수입증지 자동인증기를 설치 및 운영한다.(※ 7개 군 지역 안전센터 : 울릉, 영양, 청송, 봉화, 예천, 청도, 군위 119안전센터)

수입증지는 자치단체에서 현금을 대신하여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인·허가 민원 신청 시 은행 및 별도의 위탁판매점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다시 소방서 민원실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나 이번 자동인증기 설치로 민원인은 한 번의 방문을 통해 즉시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가능하다.

▶ 문의 : 경북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 053)715-2153

장애아동 둔 아빠·엄마들! 스트레스 훌훌 날려버려요!

발달장애아동 둔 부모들에게 맞춤형 전문심리상담 지원

경상북도는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지원을 실시한다.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전문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수행 역량, 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지역 등 8개소의 제공기관을 선정했다.

장애아동 부모심리 상담사업은 지금까지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발달장애아동의 장애에 대한 정서적 불안과 양육과 보호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실에 착안,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우울증 등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이다.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으로 산정하며, 월 16만원을 지원한다.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장애아동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은 주1회씩 실시하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6세 미만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53)950-2515



“언론중재위원회에 교육 신청하세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교육 홈페이지(<http://edu.pac.or.kr>)를 오픈했다. 교육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교육 내용은 **언론피해예방교육, ADR(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다.

언론피해 예방교육

언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분쟁의 해결방안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

ADR 교육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인 ADR 기법에 관하여 공무원, 교사,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경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신청 후 14일 안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TV, 라디오, 신문, 인터넷신문 등) 보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053-763-0020,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동, 체험형 정신문화 수련장 확충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장 권영세)이 유교문화와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한 정신문화수련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한국국학진흥원,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배출한 수련생은 지난 한 해 6만 명을 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선비수련원에서만 2만2천명이 넘어서는 등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안동시는 보다 다양한 체험형 정신문화 수련장 확충에 나섰다.



○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제2원사 건립

최고의 정신문화수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산선비문화수련원이 몰려드는 연수생 수용을 위해 제2원사 건립을 추진,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강의실과 다목적 체험실, 숙소 등이 마련된다.

○ 안동민속촌에 ‘한자마을’ 조성

‘한자(漢字)’라는 테마를 활용한 교육적 요소 접목으로 단순 방문에서 교육과 위락, 소풍기능까지 제공하는 오감체험 유교문화 체험공간인 ‘한자마을’이 조성된다. 한자마을 조성사업은 성곡동 야외민속촌 일원 17,659㎡ 부지에 100억 원을 들여 2015년까지 한옥서당 7동을 비롯해 산책로가 조성된다. 계남고택과 까치구멍집 등 기존 고택 8동은 개·보수에 들어가 내년 7월부터 고택체험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 주변에 테마공원이 조성된다. 독립운동의 성지인 임하면 천전리 일원 136,483㎡ 부지에 2015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전시관과 교육문화관을 비롯해 백서농장과 청산리훈장 등 독립운동야외체험관이 마련된다.

○ 안동충의역사 체험장’ 조성

안동지역 임란 의병장의 역사관과 업적을 재조명해 안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안동충의역사체험장’이 조성된다. 35억원을 들여 임하면 수곡리 산 62번지 일원 5,000㎡부지에 강당과 체험교육관, 충의역사관, 역사체험시설이 들어선다.

▶ 문의 : 안동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054)840-5220

명품 체험장 본격 개장 대비 올해 연말까지 무료!

오토캠핑장, 미니동물농장 갖춘 '대가야 농촌문화체험 특구장'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고령읍 고아리 일원 '대가야 농촌문화체험 특구장'을 올해 연말까지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 개장한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여에 걸쳐 조성된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장은 부지면적 69,190㎡(20,930평)에 총사업비는 43억6천만원을 투입, 전통농업 전시실, 미니동물농장, 다양하게 식재된 농작물을 비롯하여 오토캠핑장 15면, 원두막 11개, 고상가옥 4동과 부대시설로 농산물판매장, 대형물레방아, 움집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고령을 찾는 관광객은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왕릉전시관과 대가야박물관, 대가야테마공원을 관람한 후 테마공원 뒤편으로 100m 정도 셋길을 내려오면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장을 덩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이곳은 가족들이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원두막 체험이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토캠핑장을 이용하게 되면 야영뿐만 아니라 특구장 앞으로 흐르는 안림천의 맑은 물에서 가족들과 다양한 민물고기잡이 체험까지 즐길 수 있어 대도시 근교에 또 하나의 가족놀이 명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놀이문화가 가족단위로 전개되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시설물 설치도 공급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관광고령의 명성에 걸맞은 명품 체험장으로 준비, 본격적인 개장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고령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 054)950-6704



2013 곤충나라 Clean 예천 농산물대축제!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건강한 밥상! 예천 농·특산물로!'라는 주제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예천을 한천체육공원에서 '2013 곤충나라 Clean 예천 농산물대축제'를 개최한다.

예천농산물대축제는 1999년부터 예천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16일 전후로 개최되는 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짜임새 있는 축제구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즐기고 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신 도청시대 경북의 새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내실있는 축제를 기획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축제개막식, 군민의 날 기념식 등 공식행사,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군민노래자랑, 전통문화예술 공연 등 공연행사, ▷우수농특산물 종합전시관, 친환경농산물 전시관, 우리음식 전시관 등 전시행사,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도자기 만들기 등 체험 행사, ▷예천단샘다례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어르신 건강축제 등 이벤트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전에는 과실류, 잡곡류, 채소류, 임산물류와 예천농협, 예천축협 등 유관기관과 생산자 단체가 직접 판매부스를 운영하며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착한 가격에 소포장으로 상품화하여 관람객의 구매력을 높이는 판매촉진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예천참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예천참우축제를 함께 개최, 축제장에서 참우시식회로 입맛을 자극함은 물론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군민화합 퍼포먼스로 기획된 오색 가래떡 뽑기는 예천에서 생산되는 쌀로 군민들의 오복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신 도청시대 경북의 중심으로 도약을 기원하는 행사로 내빈, 주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하였다.

박종철 축제추진위원장은 "10월 16일부터 다양한 전시, 체험, 참여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에서 직접 품질 좋은 예천농산물을 다양하게 구매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rbal Fruit Festival Yeongcheon

문의: 053-251-1790

맛가가족 할일 여행...
한약향기 과일향기 적어날
한반도 특구 영천에서!!!

영천 한반도 과일축제

2013. 10. 2(수) ▶ 6(일) 5일간
영천강변공원

개막행사 10. 2(수) 오후 6시 축제장 특설무대 **inet-TV** 녹화방송

주최/주관 영천한약축제추진위원회 / 영천한방산업발전협의회
영천과일축제추진위원회 / NH농협영천시지부

후원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의회,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한외과대학, 대구대학교, 영천시지역농협, 영천시농업인단체 등



"2013년 경상북도 관광사진 공모전"

매일신문사와 경상북도는 경북도내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2013년 경북 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 ▷ 공모분야 : 경상북도의 자연환경·유·무형문화재·축제·주민생활상 등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사진.
- ▷ 접수기간 : 2013. 9. 16(월) ~ 10.13(일)
- ▷ 접수방법 : 2Mb 전후의 jpg파일을 매일신문 홈페이지(www.imaeil.com) → 포토갤러리 → '경북관광사진공모전' 배너에 접수.
 - 원본 파일 해상도는 반드시 3000 × 1600 픽셀 이상이 될 것.
- ▷ 출품요령 : 1) 1인 4점 이내(출품료 없음),
2) 제목, 성명, 연락처, 촬영장소 명기.
 - 입상자는 추후 원본파일·주민번호·계좌번호를 주취측에 제공할 것.
- ▷ 결과발표 : 2013. 10. 25(금) 예정(매일신문사·경북관광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 전시장소 및 기간 : 경상북도청사 2013. 10. 28(월) ~10. 30(수)
- ▷ 시상부문

| 시상부문 | 수량 | 상금 | 비고 |
|------|-----|---------|-----------|
| 금 상 | 1점 | 300만원 | |
| 은 상 | 2점 | 각 150만원 | |
| 동 상 | 3점 | 각 100만원 | |
| 가 각 | 15점 | 각 30만원 | |
| 입 선 | 50점 | 각 10만원 | |
| 특별상 | 1점 | 100만원 | 한국관광공사사장상 |

▷ 기타사항

- 입상·입선작의 저작권 재산권은 주취측에 귀속됨.
- 출품작은 타인의 초상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됨
- 컴퓨터합성, 조작한 작품은 입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조치함 - 단 약간의 색보정은 가능
- 출품작품은 본인의 작품이어야 하고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서는 안됨.
- 시상금에 대한 세금은 본인 부담.
- 문의 : 053)251-1790(공모전 담당자)

주최 : 경상북도 주관 : 매일신문사

